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 본문

속 9:9-13

■ 시작 찬송가

95, 96, 325장
(통 82, 94, 359장)

■ 헌금 찬송가

151, 321, 327장
(통 138, 351, 361장)

▶ 겸손

1. 예수님의 겸손

- 1) 제자들 중에 섬기는 자로 계심 (눅 22:27)
- 2)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 (요 13:5,14)
- 3)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 (고후 8:9)
- 4) 하나님으로서 사람과 같이 되심 (빌 2:5-11)
- 5) 죽기까지 복종하심 (빌 2:8)

종려주일

종려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받으신다'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입니다.

이번 종려 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신다'입니다. 종려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왕 되심을 환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바랍니다.

마 21:8-11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은 사복음서 모든 곳에 나옵니다. 또한, 공통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장면입니다. 이 공통된 이야기는 '성경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과,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의도를 갖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가능성 속에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셨겠습니까?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고, 말을 타고 화려하게 입장할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던지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스가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종려 주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나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싶은 왕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

스가랴 9장 초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를 향한 심판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어렵게 한 두로와 시돈, 아스글론, 가사, 그리고 에그론 등 이 수많은 나라들이 수치를 당하고 심판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후, 모든 심판을 이뤄낸 왕이 드디어 승리자로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입성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말과 병거를 타고,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화려하게 수많은 군인들과 함께 입성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게 하시는 분은 말과 병거를 타지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왕의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왕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입니다.

속 9: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의 왕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 주시는 왕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의 보좌를 봐도 다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머리 누일 곳도 없으셨습니다.

마 8:20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또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쉼을 얻습니다.

마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성경에서 겸손을 이해하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의 겸손은 ‘낮은 자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하늘 높은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우리의 땅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겸손의 흉내를 내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거하신다(ἐσκήνωσεν, 에스케노센)”라는 단어는 ‘잠깐 들리셨다’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높은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평화의 왕

우리의 왕은 평화의 왕입니다.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성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환영하며 그들이 가져가다준 평화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화를 가지고 입성한 것 같지만, 다시 백성들을 통해서 전쟁을 하는 압제와 칼 아래 두는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로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는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멈추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의 말도 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평화를 가져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만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속 9:10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누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왕을 섬길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왕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왕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겸손과 평화의 왕을 섬길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세상의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을 데려다가 그들의 소산으로 삼고, 우리의 밭을 가져가는 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들과 딸을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소산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길 왕은 우리 가운데 겸손하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상 8:11,13 11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3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오늘의 한마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공동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

▶ 화평

1. 화평하게 하는 자

- 1) 예수 그리스도
(고후 5:18-21)

2. 화평이 주는 것

- 1) 복을 받는다.
(마 5:9)
- 2)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마 5:9)
- 3) 의의 열매를 거둔다.
(약 3:18)